

근대-종교-교육, 단절과 접속이라는 정체와 소통의 사이 연결

서 명 석
(제주교육대학교)

《요약》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다. 그럴 때 종교는 인간의 실존의 마당과 연결하면서 존재를 성화된 광장으로 이끈다. 그 이끌음을 교육이 관장할 때 우리는 그 행위를 종교교육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이 글은 종교교육의 실제적 세계를 근대교육의 관점에서 해체한 뒤, 종교의 본원적 개념망을 시추하여 종교교육의 위상공간을 논리적으로 확보해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근대교육이 왜 교육에서의 종교성을 망실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두었다. 그리고 나서 종교와 교육이 화해하는 접점을 종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로써 여기에다 그 길을 부각시켜 놓았다. 근대는 이성이 중심이며 그 이성의 부림으로 지탱하는 교육관이 근대교육이다. 이곳은 이성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모두 점령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라디오에 복무케 하는 교육활동을 구성한다. 그런 다음 그 활동에 매진하도록 라디오가 인간을 조종한다. 따라서 이 시간은 철저하게 '라디오의' '라디오에 의한' '라디오를 위한' 흐름의 공간일 뿐이다. 이 시간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종교적인 시간대의 성역 공간은 아예 없다.

인간이 종교적 존재라고 말할 때 그 배면에 이 정치를 떠받치는 구조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만 한다. 즉, 인간이 숙명적으로 '속화된 시간'과 '성화된 시간', 이 두 시간대를 변증적으로 오고가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것이 언표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보면 종교란 속계와 성계 사이를 잇는 교량적 장치인 셈이다. 그래서 종교는 언제나 범속화된 인간을 성스러운 존재로 초월시키고자 경주한다. 이런 활동을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교육적 시간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활동을 우리가 종교교육이라고 보면 틀림없겠다. 따라서 근대 그리고 근대교육이 놓쳐 버린 교육에서의 종교성은 이제 부활의 기점에 서 있다. 그러면서 종교의 본연의 의미, 즉 '교육 중에서 맨 꼭대기에 위치하는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교육과 다시 접속될 수 있다. 그와 같은 단순한 접속을 넘어 학교에서 교육의 한 영역으로 종교를 접수해야 할 시점이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하는 종교교육이 우리 앞에서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리라.

핵심주제어 : 근대, 근대교육, 라티오, 종교, 종교교육

I. 시작 아니 시작(詩作)함

소슬바람이 컷가를 스칠 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묻곤 한다. 그러나 그 물음은 너무나도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일상에 매몰된 우리는 존재 의미를 찾아 헤매다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¹⁾ 마찬가지로 종교의 의미도 이 계절만큼이나 스산하다. 이것이 교육과 결합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다음 시를 통하여 종교의 세계를 일단 음미해보도록 하자. 지브란은 《예언자》에서 종교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아래는 ‘종교에 관하여’라는 시의 전문이다.

이번에는 나이든 성직자가 요청했습니다. 저희에게 종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언자는 대답했습니다./내가 오늘 지금까지 말한 것이 종교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사색이 종교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아무 감동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하는 행위나 사색은 종교가 아니다. 들판에서 돌을 쪼는 것도 베틀에서 천을 짜는 것도 그대들의 영혼에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인 것이다./사람들은 믿음과 일상의 삶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며 종교적 행위와 매일매일 하는 일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누가 진정으로 이 둘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누가 자신의 삶의 순간들을 펼쳐 놓고 “이것은 신을 위한 것이요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영혼을 위한 것이다” 하고 구별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삶의 모든 순간들은 날개를 달고 있어 자아에서 자아로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자유로운 비상을 가로막는 도덕을 가장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며 두텁게 몸에 걸치고 다니는 사람은 차라리 벌거벗고 다니는 게 나으리라. 바람도 태양도 그의 옷을 뚫지 못하며 그의 살갗에 맑고 밝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지 못하리라. 자신의 행위를 도덕의 틀 속에만 가두어 두는 자는 노래하는 피꼬리를 새장 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실로 자유에 찬 노래는 감옥의 쇠창살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법이다./잠시 열었다가 닫아 버리고는 하루 종일 닫혀 있는 창문처럼 기도하는 이 식사 기도처럼 시간을 정해 놓고 형식에 얽매인 기도를 하는

1) 쇠렌 키에르케고르, 임규정 옮김, 《불안의 개념》(서울: 한길사, 1999), 21쪽.

이 이런 사람들은 잠깨기 전 새벽부터 다음날 여명의 시간까지 스물 네 시간 내내 창문이 열려있는 영혼의 집을 아직 한번도 가보지 못한 불쌍한 자들이다./울고 웃고 매일 매일의 삶 그것이 바로 그대들의 예배당이며 종교다. 예배당으로 들어갈 때 그대들이 가진 것 모두를 가지고 가라.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든 삶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한 것이든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상상 속에서도 그대들은 그대들이 이룩한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고 그대들이 실패한 것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또한 예배당에 들어갈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도록 하라. 찬미와 기도 중에서도 그대들은 그들의 희망보다 더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없으며 그들의 절망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신을 아는 것은 남다른 재주와 재치를 가진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신비로운 세계를 아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인생을 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살며 매일 매일 삶을 진솔하게 바라다보게 되면 누구나 진실로 신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수수께끼를 풀듯이 묘한 비법을 가지고 신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되리라./신을 알려거든 그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러면 그분이 그대들의 자녀와 함께 뛰놀고 있음을 보게 되리라. 또한 하늘을 바라다보라. 그러면 그분이 구름 속을 평화로이 거닐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번개 속에서 성난 팔을 뻗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비속에서 자애롭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나무숲 사이에서 손을 흔들며 그대들을 사랑으로 부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리라.²⁾

- 2) 칼릴 지브란, 박철홍 옮김, 《예언자》(서울: 김영사, 2004), 137-141쪽. 번역문이기엔 원문과는 다소 출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번거롭지만 원문을 아울러 병기해둔다: <And an old priest said, Speak to us of religion. And he said: Have I spoken this day aught else? Is not religion all deed and all reflection, And that which is neither deed nor reflection, but a wonder and a surprise ever springing in the soul, even while the hands hew the stone or tend the loom? Who can separate his faith from his actions, or his belief from his occupations? Who can spread his hours before him, saying, "This for God and this for myself; This for my soul, and this other for my body?" All your hours are wings that beat through space from self to self. He who wears his morality but as his best garment were better naked. The wind and the sun will tear no holes in his skin. And he who defines his conduct by ethics imprisons his song-bird in a cage. The freest song comes not through bars and wires. And he to whom worshipping is a window, to open but also to shut, has not yet visited the house of his soul whose windows are from dawn to dawn. Your daily life is your temple and your religion. Whenever you enter into it take with you your all. Take the plough and the forge and the mallet and the lute, The things you have fashioned in necessity or for delight. For in revery you cannot rise above

II. 문제의 어섯는

나: 초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초등학교교사: 아니오, 아니오(neti, neti).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면 큰일 나는 것 모르세요.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종교에 대하여 중립성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이것은 우리 교육에서 종교가 갖는 아니 종교교육이 처하고 있는 위상을 적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것에 대한 어섯이 이 글의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궁극으로 뻗어나가는 단초와도 같다. 종교의 중립성에 대한 철저한 오독. 그리고 그릇된 교육의 행태와 우리 종교교육의 문제점이 이 점에서 건져 올려질 수 있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Homo religiosus)이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교는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럴 때 현대를 가늠하는 잣대는 이성(ratio)이기에 현대인을 이성적 존재(Homo ratio)로 명명한다. 이 라티오가 우리 삶을 전제적으로 거중·조정할 때 텔리기오는 인간의 존재 모습에서 삭제되는 비운을 겪는다. 그래서 저 라티오의 호명과 그것에 대한 소명으로 일관하는 근대교육(modern education)에서 더 이상 종교는 그 자리를 찾을 길이 없다. 물론 근대교육은 장대한 논의의 역동적 과정을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만큼 진폭이 크다는 것이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논의의 광장은 일단 제쳐두고 근대교육은 현행 공교육이라는 관점을 취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근대의 출발은 다분히 서구 교육체제의 수용이고 그것의 한국적인 뿌리내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벌이는 공교육의 장치는 대부분 제도적으로는 서양 근대교육과 동일한 맥락 안에서의 한국적 버전일 뿐이다.

우리 교육은 교육의 종교적 차원에서 오해와 오류를 동시에 저지르고 있다.

your achievement nor fall lower than your failures. And in adoration you cannot fly higher than their hopes nor humble yourself lower than their despair. And if you would know God be not therefore a solver of riddles. Rather look about you and you shall see Him playing with your children. And look into space; you shall see Him walking in the cloud, outstretching His arms in the lightning and descending in rain. You shall see Him smiling in flowers, then rising and waving His hands in trees.>

오해와 오류는 다르다. 먼저, 오해를 보자. 어느 초등학교교사와 같이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을 국·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교육 기본법을 오독하는 것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오해에 가깝다.³⁾ 그럼 오류는 무엇인가.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 흔히 실시하고 있는 종교교육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테면, 종교재단의 설립주체에 따라 학교별로 실시되는 종교교육이 교리교육 또는 교파교육으로 이끌릴 때, 그것은 종교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오류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종교교육에서 오해와 오류를 동시에 저지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오해와 오류를 극복하면서 종교교육이란 것이 진정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교육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어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

III. 근대의 아우성과 교육에서 종교성의 증발

근대는 이성의 시대이다. 더욱 길게 호흡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이성-중심의 시대상이다. 인간의 이성은 모든 곳에서 최강의 견고한 성체를 유지한다. 그러면서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고. 이 코기토의 부림이 라티오의 현전이다. 이런 현전의 가능태가 인간이 장악하는 이성의 시간성이다. 이 시간성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한 치의 시간적 흐트러짐을 허용하지 않는 물리적이며 기계적인 시간과의 접속에 온 존재를 바쳐 가면서 나날을 보낸다.

그러므로 근대의 아우성은 저 코기토를 만들어가는 라티오의 중력장에서 나오는 이 시대의 잡음이다. 그 중력 공간에서 내주하는 교육의 틀을 근대교육이라 이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교육은 [1] <근대적인> 인간이 [2] <근대적인> 시간 속에서 [3] <근대적인> 라티오의 충직한 노복으로 헌신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세 번 이어서 등장하는 근대의 코드는 다윈 하지만 실제로는 일원하다. [1]의 <근대적인>은 modern이기에 이것은 직선적 시간계열의 한 점유축을 말한다. 근대 이전은 전근대로서 pre-modern이다. 이 시대는 신-중심의 세계관이 었다. 그러던 것이 근대로 오면서 신은 죽고, 그 신의 자리에 인간의 오만한 이성이 들어섰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근대적인>은 시간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3) 여기서는 소극적 중립과 적극적 중립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소극적 중립이란 <하지-말라>라는 부정적 금지를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 중립은 <하되-편향되지-말라>라는 적극적 권고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제 학교에서는 적극적 중립이 아닌 소극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

이것을 총괄하여 이성-중심의 근대 세계관이라고도 지칭한다. [2]의 <근대적인>은 시간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크게 두 권역으로 통상 구별하여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양화로 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화로 이끌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일 것이다. 그런데 근대는 인간에게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앗아갔고 크로노스의 시간만으로 우리들의 일상적 삶을 설계한다. 이 때, 크로노스의 시간성은 철저하게 우리를 시간의 노예로 밀어붙인다. 그 속에서 업적의 물리적 축적으로 내몰리는 다그침(Gestell)의 시간대로 우리는 미끄러진다. 이곳에서는 삶의 질성을 사색하는 그 어떤 시간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자. 나의 존재가 무엇이고, 나는 왜 이 세상에 나서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 속에서 쳇바퀴를 돌아야 하는가? 이런 성찰의 광장은 여기에 없다.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더 큰 효과성을 만들어야 할까 하는 문제에만 매진하는 구조 속에서 맴돌이를 계속하는 것뿐이다. 오로지 <이성의 도움으로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잘게 나누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런 다음 개념화하고, 다시 이론화 하려고만 노력한다.> 지금 말한 ‘<’에서 ‘>’까지가 라티오가 하는 [3]<근대적인>의 의미구역이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 즉 라티오의 작업이다. 철저하게 이 속에서 우리는 라티오의 노예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제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해보자. 근대적인 인간이란 근대의 세계 안에서 크로노스 시간성의 부촉을 받으면서 <라티오의 라티오에 의한 라티오를 위한> 라티오 파시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일 뿐이다.

이들에게 종교적인 명량성(Heiterkeit)이 들어있을까? 그들에게 이제 종교성의 상실은 있어도 종교적인 명량성은 없다. 여기서 지목하는 종교성이란 인간만이 품을 수 있는 영성(spirituality)의 다른 이름이다. 또 이런 명량성은 표정의 유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정신적으로 행복함과 충만감으로 만드는 힘의 동력원을 말한다. 우리는 지금 영성 부재의 시간대를 살아간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세속적 일(business)로 인한 바쁨(busyness)에서 연원한다. 우리는 모두 다 비즈니스로 비즈니스하다. 이런 시간성에서 종교적 성찰의 배움은 없다.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사실과 정보를 집적하고 다른 장르로 가서 다른 것을 배워야만 하는 또 다른 시간만이 도래할 뿐이다. 그러나 종교는 시간성에서 보면 근원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대와 만난다. 그 속에서 나를 돌이켜 내 존재를 성찰하고, 내 존재성의 저 웅숭깊음과 대면하면서 영성의 발현을 현재 속에서 그리고 현재 안에서 현전하기를 고대한다. 그 기다림이 바로 종교적 시간성과 연대하는 길이고, 그 연대의 결과로 얻어지는 종교성의 배양이 바로 종교교육이 가려고 하는 엘도라도와 같은 이상향으로서의 고향이다. 그런 고향은 이

제 근대에서는 없다고 보아도 좋다. 넓혀서 근대교육에서는 정확히 그것이 실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분다가 고행을 통하여 얻어냈던 그 경지, 예수가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 지평의 본뜻은 이제 <근대적인> 구획으로 영위되는 근대교육에서 그 본령이 완전히 증발하였다. 있다면, 이성과 감성이라는 답답한 이원화의 깃발 아래서 각축하는 두 성—이성과 감성—의 얼굴을 한 영성 없는 존재의 가벼움만이 목도된다. 그렇다 하여 이성의 시대가 영원히 끝나지는 않는다. 이성是我们들에게 언제나 포기하기 어려운 프로메테우스의 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이 이성의 빛이 너무 강렬하였기에 그 이성에 가려진 이성 너머의 빛을 찾아야 하는 시대상의 문턱에 들어서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성 없는 교육은 공허하고 종교 없는 교육은 빈약한 것 인지도 모를 일이다.

모더니즘은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의 반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모더니즘의 교육도 똑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교육에 의한 비판과 재구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근대가 이성을 중심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육시키는 동안 이성의 칼날에 죽음을 당한 중세의 종교성은 지금 부활의 틈새를 엿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성의 탈근대적 복원은 아니다. 본래 인간이란 근원적으로 종교적이며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대에서 굴절된 종교교육은 이제 복원의 가능성과 만나고, 그 만남의 도정에서 우리는 근대교육의 종교적 학살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리라. 근대의 정칙대로 신은 우리에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 너머에 존재해 왔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신이 이제는 인간의 마당으로 내려와서 교육과 만나야 한다. 이는 단순하게 종교적 의례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도대체 종교성이 무엇이고, 그 종교성을 기르는 종교교육은 무엇이며, 그 종교성의 실체가 우리 삶의 어디에 있기에 이런 주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타진이 필요한 것이다. 이성은 인간의 종교성을 근대의 시간 안에 묻었다. 동시에 그 시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종교성의 숭고함을 존재망각의 강물에 흘려보냈다.

IV. 종교의 위상공간: 聖俗의 텔라치오

종교는 '최상의 가르침(宗教)'이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의 풀어쓰이다. 그러나 종교라는 용어는 우리들에게 근대 이후 수입된 용어로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양의 religion을 동양의 근대인, 즉 일본인들

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로 써오고 있다. 그렇다면 근대 이전 선학들에게 종교는 물론 낯설 것이다. 그것을 종교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가르침은 그들에게 늘 있어왔다. 유교가 그래왔고, 불교가 그래왔다는 것은 자명하다.

허나 이왕 나왔기에 짚고 넘어가 보자. 왜 서구인들이 종교를 저렇게 표기하였을까. 그 연원을 소급하여 가보자는 것이겠다. 그것은 리(re)-리전(ligion)을 분절하여 가는 길이다. 종교가 re와 ligion의 결합으로 탄생되었다는 어원적 분석도 있다. 그런데 이점은 우리들이 종교를 이해하는데 정말 요긴한 단초를 제공한다. 're'는 다 알고 있듯이 '다시 또는 반복[back]'을 운반하는 접두사이다. 그리고 'ligion'은 라틴어에서 '함께 결합시킨다[to bind, bind together]'는 뜻을 함유한 라틴어의 'ligare'에서 나왔다. 이것이 're-ligare'이고 이것의 라틴어 명사형이 're-ligio'이다. 또 다시 이것에서 영어 표현인 're-ligion'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얼추 맞는다.

그러므로 서양적 시각으로 종교를 들여다 볼 때, 그 어원에 보다 근접하는 해석은 종교란 다시-함께-결합시킴이란 것이다. 이것을 일종의 재-결합이라고 보면 된다. 그럴 때 재결합은 언제나 두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한다. A와 B의 재결합 같이. 그러면 평소에 이 둘은 갈라서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고 보아야 한다. 이별한 두 연인과 같이 갈라서 있다. 종교는 이 점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종교의 존립근거이다. 이를 다시 확인하여 말해보자. 종교에서 볼 때 A가 인간이고 B가 신이 된다. 그 반대도 물론 가능하다. 즉, 여기서 <A와 B의 재결합 = 인간과 신의 재결합>이라는 등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것이 어원에 가장 충실한 해석으로서의 종교이다. 다만 교파에 따라 [1] '신으로서의 B가 인간 A안에 있다'고 보는 반면, [2] '신으로서의 B가 인간 A밖에 있다'는 식의 변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것이 맞는가와 같은 논쟁은 이 글의 중심 테제는 아니다. 짧게 부연해 두자면, [1]은 불교와 가깝고, [2]는 기독교에 기운다. 하지만 이 글은 보편적 종교를 논하는데 더욱 집중하고 있다.

이런 선입견을 담아두고 더 논의를 진행해보자. 그것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 종교가 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을 우리는 재-결합으로 읽어야 하는 것인가와 같은 물음이다. 이것은 종교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떠한 위상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인가를 해명하는 일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엘리아데의 입장을 취한다: <인간은 운명적으로 두 권역을 산다. 하나는 속계(俗界)요, 다른 하나는 성계(聖界)이다. 이 두 세계를 변증적으로 오가며 우리는 살아간다.>⁴⁾ 이것은 내가 속계에 있으면 인간임을 면치 못하고 내가 또 성

계에 있으면 신의 경지로 올라서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럴 때 위치로 보아 속계는 A가 되고 성계는 자연스럽게 B가 된다. 쉽게 파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요약할 수 있다.

* 종교의 위상공간



속계 = A, 성계 = B

여기서 속계는 인간이 통상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존의 장이다. 그렇지만 성계는 존재가 성스럽게 고양되어 있는 실존의 상태를 말한다.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 존재를 어떻게 하면 성계로 되돌릴까 하는 의도적인 노력의 국면이 있을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성계에 있다면 어떤 힘에 의하여 속계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속계와 성계를 오간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1] <A에서 B로> [2] <다시 B에서 A로>.⁵⁾ 한번 불교적으로 말해보자. 내가 지금까지 속되게 살아왔다. 그런데 내 삶을 정신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하여 분다가 모셔진 정각원을 찾았다. 그 곳에서 예불을 드리고 명상도 했다. 그러고 나니 한결 내 마음이 가벼워졌음을 난 느꼈다. 이것은 내가 속계에서 성계로 나가려는 의도적 행위인 동시에 종교적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포착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종교란 것이 속계와 성계 사이를 잇는 교량적 장치라는 점이다. 내가 지금 불교적인 예를 들었지만 타 종교에서도 이런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 속된 내 존재성을 성스러운 존재성으로 격상하려는 일과 종교는 그래서 접속된다. 그 접속의 지점이 바로 종교가 살아 숨쉬는 위상공간인 것이다. 이렇게 서구적 어원을 충실하게 보니 종교란 것이 속계와 성계의 재-결합임이 판명되었다.

4) M.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聖)과 속(俗)》(서울: 한길사, 2005).

5) A에서 B로 올라가는 작업은 일종의 정신적 충전[$\cap$]과도 같다($A\cap B$). 동일하게 B에서 A로 내려가는 정신적 방전[$\sim$]도 있을 수 있다($A\sim B$). 그런데, 충전으로서의 $A\cap B$ 는 의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방전으로서의 $A\sim B$ 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삶의 중력에 의하여 자연히 그렇게 이동한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타락이라 부른다. 이 때 타락은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더러워졌다는 가치 값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보아 그렇다는 점을 말한다.

* 성숙의 개념적 대척

A / B
 일상 / 초일상
 크로노스 / 카이로스
 속화 / 성화
 오염됨[染] / 정화됨[淨]
 카오스 / 코스모스
 불경함 / 경건함
 불순함 / 순수함
 지상 / 천상
 방전의 시간 / 충전의 시간
 소비의 시간 / 기원의 시간
 비-은총의 시간 / 은총의 시간
 기계적 분절의 현재 / 영원의 현재
 세속적임 / 탈속적임
 속된 시간 / 성스러운 시간
 비-본질 / 본질
 작은-있음(is-ness) / 큰-있음(Is-ness)
 작은 나(self) / 큰 나(Self)

여기서 A에 위치한 모든 것은 俗의 의미 값일 것이고, B에 위치한 모든 것은 聖의 의미 값이 될 것이다. 즉, A는 속집합이요 B는 성집합이 된다. 그런데 집합A에서 집합B로 이동하는 것을 종교적 초월이라 부를 수 있겠다. 종교는 언제나 초월적이다. 그러하기에 인간을 종교적으로 말해서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리라. 물론, 여기서 지목하는 초월은 이러한 의미의 지평을 함유하는 것이다. “초월이란 이행이다. 이 이행은 보통 감성적인 것에서 비감성적인 혹은 초감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운동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초월은 주어진 삶의 부분성이나 범속성을 전체적이고 고양된 이념으로 극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초월이란 삶에 대한 개인적이고 단편화된 경험을 넘어 전체로서의 ‘온전한 삶’에 대한 관점으로 이행하는 운동이다.”⁶⁾ 그 운동을 종교가 시킨다. 이런 초월은 또 존재가 탈존하며 현존하는 방식이다. 종교에서 <“나는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외침은 성스러운 공간에 있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종교적 인간이라면 가능한 한 세계의 중심에 가까이 살고자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다. 즉, 태초에 우주가 창조주의 손에 새롭게 태어났을 때처럼 순수하고 성스러운 우주에 살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다.>⁷⁾

6) 도정일 외 10인, 《사유의 공간》(서울: 생각의 나무, 2004), 155쪽.

7) M. 엘리아데, 앞의 책, 66-87쪽 참조.

V. 종교와 교육의 대동국

종교와 교육은 저런 초월을 전제하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초월은 일종의 월경(越境)이다. 즉, 풀어쓰면 그것은 경계 넘기와 같은 것인데 인간의 경지에서 신의 경지로 올라가는 일이다. 다시 말하여 이는 인간을 넘는다는 말이기애 트랜스-퍼스널(trans-personal)의 관점으로 종교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성과 속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살아간다. 이런 <경계선은 잠재적인 전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경계선은 두 개의 대립된 영토와 전투가능성이 있는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⁸⁾ 인간이 초월로 들어가거나 이미 초월해 들어간 성계의 시간은 존재의 존재론적 사역함의 역동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존재는 실존하는 인간에게 속하는 존재 이해 속에 열어 밝혀져 있다⁹⁾”는 점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으로 해서 종교는 존재론적 사역함의 기반이 되며, 인간의 초월가능성을 성계 그 자체로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새 경계로의 탈-존(Ek-sistenz)을 우리들에게 평생토록 요구하는 것이겠다.

그럼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있어 초월과 탈존이 가능한 존재라고 보는 것일까? 인간은 살아 있는 존재(Homo vivens)이다. 살아 있으면서 숨쉰다. 그 숨이 다름 아닌 영[靈·spirit]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이런 영이 존재함으로 해서 종교가 태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기독교의 예를 들어보겠다. 기독교에서 영은 성령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루아흐(Ruach)라 표현한다. 중세에는 스피리투스(spiritus)라는 라틴어로 이 루아흐를 번역했다.¹⁰⁾ 그런데 스피리투스는 어원상 원래 인간의 ‘숨결’과 ‘바람’을 뜻한다.¹¹⁾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스피리투스에 <인간에게-생명을-불어-넣음>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다. 다음 구절로도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신의 실체는 영이다[God is spirit, 요한복음, 4: 24].” 그런데 이 영은 우리가 선명하게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영원히 포착될 수도 없는 잔여(residuum)와 같은 거다. 그러하기에 영은 인간의 내면 안에 들어있는 무엇이고, 우리들의 숨결을 통하여 그것이 출입한다. 이 영에다가 우리가 그것이 가지는 실재를 부여하고 들어갈 때 그것에서 영·성[靈·性·spiritual-ity]이라는 개념을 추론한다.¹²⁾ 물론,

8) 켄 월버, 김철수 옮김, 《무경계》(서울: 무우수, 2005), 33쪽.

9) 한스 페터 헨켈, 이기상·추기연 옮김, 《하이데거와 禪》(서울: 민음사, 1995), 73쪽.

10) 오강남, 《예수는 없다》(서울: 현암사, 2001), 125쪽.

11) 한스 페르 뒤르 외 4인, 여상훈 옮김, 《신, 인간 그리고 과학》(서울: 시유시, 2000), 108-109쪽.

12) 정인석,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서울: 대왕사, 2003), 309쪽: “따라서 영성문제에 있

○성[性·xìng]은 항상 <어떤[= ○] 세계가 머금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의 추상적 집합[= 性]>이다. 이렇게 볼 때 영성은 영의 세계가 머금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인 셈이다. 이 영성이 바로 종교적 신성(神性)을 뜻한다: <영성 ≡ 신성> (≡는 상호 교환될 수 있음을 말한다.). <종교교육의 가능조건>이 존재운동으로서의 <성과 속의 변증작용>이었다면, 인간에게 있는 이 영성이야말로 <종교교육의 가능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말해보자. 그렇다면 종교교육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종교적 심성을 길러주는 교육일 것이고, 그 종교적 심성은 영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일종의 영성교육과도 같다. 그 영성의 값은 앞 절에서 언급한 B값, 즉 성가(聖價)의 집합들로 구성되는 모든 것들의 총체가 될 것이다.

곳판 <1>

독실한 기독교도인 한 초등학교교사가 ○○초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매일 아침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반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곳판 <2>

어느 ○○초등학교 6학년 ○반에서 다음과 같은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1. 교과명: 사회과¹³⁾
2. 단원명: 복을 빌고 평등한 세상을 바라고
3. 본시주제: 천주교와 동학
4. 차시: 7/16
5. 수업목표: 조선 후기 천주교와 동학이 널리 받아들여진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6. 수업의 실제:
 - 도입: 우리나라의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 전개: 두 종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 정리: 학습내용 정리하기

어서도 기성 종교가 영성을 자기종파성 안에다만 가두어 두고, 여기서 종교적 의미를 말하려고 한다면, 트랜스퍼스널은 '영성'을 완전히 개방된 자리에 갖다 놓고 누구에게나 열린 영적인 체험의 장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 한다고 말할 수 있다. ... 곧 영성은 성스러운 주관적 체험의 소산이며, 이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종교적 전통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다. 월버가 영성을 종교적 체험, 정신적 개오, 건성의 소산으로 본 것도 이를 말해준다."

- 13) 이 차시의 해당 출처는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 《사회 6-1》, 2004, 76-79쪽;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 6-1》, 2005, 160-166쪽;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과 탐구 6-1》, 2004, 81-84쪽; 한국교육출판, 《교육자료 6-1》, 2003, 5월호, 124-126쪽.>

굿판 <3>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루에 오전 오후 두 차례 각각 15분씩 명상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2교시가 끝나자 각 교실스피커에서는 명상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나왔다. 잔잔한 명상음악도 아울러 온 교실에 퍼졌다. 그러자 어떤 아이는 눈을 감고 고요히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잠을 청한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눈을 크게 뜬 채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굿판 <4>

○○초등학교 6학년 ○반 담임교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반에서 명상의 시간을 3개월째 운영하고 있다.¹⁴⁾

교사: 자, 오늘 명상시간입니다.

학생들: (이전에 해 온 것처럼 자리를 정돈하고 정갈하게 앉는다.)

교사: (미리 준비한 명상음악을 틀어준다.)

학생들: (눈을 감고 고요히 명상의 세계에 빠져든다.)

교사: 여러분, 오늘은 마음 운동을 해보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를 잘 들여다보세요.

학생들: (침-묵.)

교사: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 있는 모든 속된 것들 — 예를 들어, 분노, 미움, 그리고 질투 ... —을 하나하나씩 내던져 보세요.

명상 음악이 고요히 흐르는 가운데 수분이 흘렀다.

교사: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학생들: (침-묵.)

교사: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 있었던 그 속된 모든 것들을 말끔히 버렸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마음이 많이 정화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럼 이제 그 속된 것들이 들어 있었던 그 자리는 다시 어떤 것들로 채워졌나요?

학생들: (침-묵.)

교사: 그 자리에 용서, 이해, 그리고 사랑 ...으로 채워졌나요?

그리고 다시 수분이 흘렀다.

교사: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그러자 학생들 모두 눈을 떴다.

교사: 누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말해 볼까?

학생1: 예,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평온해요. 그리고 한 친구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그 아이에게 꼭 복수해주고 싶었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싹 가셨어요.

교사: 좋아요, 여러분. 잘했어요. 이것으로 오늘 명상시간을 마칩니다.

오늘날 학교의 종교 굿판은 이렇게 혼탁하다. 그 중 굿판 <1>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사가 특정 종교의 교리와 의례를 아이들에게 주입시킬

14) 이것은 가상 시나리오로 이를 작성하는데 다음 두 책을 참고했다: <데이비드 호킨스, 문진희 옮김, 《나의 눈》(서울: 한문화, 2001), 411-437쪽; The Science of Meditation, Time, August 4, 2003, pp. 46-54.>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편향된 종교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종교에 대한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 국판 <2>는 학교에서 특정 교과로서의 종교를 직접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업은 사회사 또는 문화사의 맥락으로 종교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에 종교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공식적인 종교교육은 실제 전무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판 <3>과 <4>는 종교교육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판 <3>은 종교교육의 한 형식으로 명상시간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통하여 아이들이 얼마만큼 교육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마지막의 국판 <4>가 교육과 종교가 만나 대동제를 엮어내는 실례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종교교육<이다 / 아니다>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그것 안에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만 한다: <전제 하나: 인간의 내면을 자극할 것. 전제 둘: 성(聖)과 속(俗) 사이의 운동양상(movement between sacred and profane)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 전제 셋: 그에 따른 영성의 발달(spiritual development)이 반드시 수반될 것.> 구체적으로 보자. 국판 <4>는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전제 하나는 여기서 눈감음으로 처리된다. 이것이 내면으로의 여정인 셈이다. 위에서 나는 우리 마음을 성(B)과 속(A)의 변증적인 출렁임이라고 보았고, 그 가운데 속됨에서 성됨으로 나아가는데 다리가 되는 것이 종교임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점이 국판 <4>의 과정에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것을 여기서는 마음 운동으로 설정해 보았다. 곧 속(俗)의 영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마음 양태들을 들었고, 그것들이 다시 성(聖)의 영역에 해당하는 마음들로 자리바꿈 하는 점을 소상하게 보여주었다—전제 둘. 물론, 이것은 종교적인 회심[回心·conversion]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다. 그 결과 한 학생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전제 셋. 이렇게 종교적 차원에서 명상은 인간의 존재성을 성역화 하는 작업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나 전제 셋은 구체적으로 실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생이 명상활동을 통하여 영적인 진화가 얼마만큼 일어났는지는 단박에 확인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국판 <4>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종교교육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적으로 개발하여 응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VI. 단절에서 접속으로

단절[滅]은 정체로 나아가고, 접속[點]은 소통으로 이어진다. 근대(근대교육도

포함)와 종교가 만나면 불이 켜질까. 그래서 두 코드를 연결시켜 보았다. 하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대와 종교는 오프-코드다. 근대와 종교가 서로 단절되어 소통의 공간이 끊긴지 오래다.¹⁵⁾ 종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과도하게 해석한 나머지 일선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없다. 있다면 종교적 사실과 종파에 관련된 지식들만이 교육에 들어있고, 아이들이 이것들만을 학습하면 종교교육은 끝난다. 엄밀하게 이것은 종교교육이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종교에 대한 지식교육의 또 다른 변종일 뿐이다. 종교교육에 대한 이런 소극적 대처가 종교에 대한 중립성으로 미화되었고, 더 나아가 교육과정 내에서 종교교육은 이제 금기 항목이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종교적 차원에 대한 심각한 교육적 훼손이다. 누가 뭐라 해도 종교는 교육 중에서 최고의 위치를 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육의 종[으뜸]이 종교다: {宗教: 교육 중에서 최고[마루·宗]의 위치, 곧 맨 꼭대기에 있는 가르침[教]}. 이것이 종교에 대한 소박한 뜻풀이다. 그런데 근대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근대의 주류적 패러다임은 철저하게 반-종교교육적인 셈이다.

근대의 반-종교교육성을 극복하려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종교교육을 해야 한다. 그 어떤 종교적 편파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중도라는 종교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고, 종교에 대한 교육의 적극적 응수일 것이다. 이는 또 교육과 종교가 접속하여 온-코드화 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 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는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다.

우리는 눈감음[內·intro]과 눈뜸[外·extro]을 동시에 살아간다. 이것은 물론 상정이다. 눈을 감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하여 내존재성의 충일감을 맛본다. 이것은 렐리기오의 몫이다. 또 눈을 뜸으로써 나와 세계가 하나로 만나면서 그 세계의 질서를 배워나간다. 이것은 또한 라티오의 몫이다. 그러나 근대는 그 하나만을 교육에서 강조해왔다. 그것이 바로 눈뜸의 교육이다. 눈을 뜨고 세계를 보면서 그 세계를 라티오로 재단해 들어갔다. 그러나 인간에게 부여된 영성은 눈뜸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다. 이 영성은 인간의 눈감음으로써 형성되는 것이기에 눈을 감고 미지의 세계를 바라볼 때 그것은 달성된다.

종교의 영역에서 이 영성이 인간의 세속적 몸을 개간하고, 그 몸에 내주하는 참 주인을 되찾게 한다. 그래서 영성이란 몸의 영혼이다.¹⁶⁾ 영혼은 몸에 기대어

15) 물론 소통도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완벽한 불-소통이지만, 중학교에서는 재량활동으로 종교가 들어가 있고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종교가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초종교적 영성을 담보하는 종교교육이 실제 이들 학교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16) 이윤기 편역, 《그리스 로마 신화》(서울: 창해, 2001), 507쪽: “푸쉬케(psyche)는 그

살지만 또 몸은 영혼을 숙성시키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몸과 영혼의 관계 지점에 교육이 침투할 때 우리 삶은 종교적으로 부활한다. 이런 인간의 종교적 삶은 영원한 것과 초월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러한 힘이고, 온갖 힘을 다하여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¹⁷⁾ 영원의 삶이란 우리에게 순수함의 신화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성이 우리들에게 항상 불가능한 가능성이란 말인가.

이제 종교교육을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교육적 배려해둠’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들어있는 영성을 회복하거나 찾아가는 길이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점이 종교와 교육이 만나 새로운 부활의 통로를 제공하는 점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신에게 경배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relegere, ergo sum).>¹⁸⁾ 언젠가 학교에서 ‘신께 바치는 노래’, 즉 ‘기탄잘리’를 다음과 같이 부를 날이 과연 우리들에게 도래할 수 있을까?

당신은 나를 무한케 하셨으니 그것은 당신의 기쁨입니다. 이 연약한 그릇을 당신은 비우고 또 비우시고 끊임없이 이 그릇을 싱싱한 생명으로 채워십니다./이 가냘픈 갈대 피리를 당신은 언덕과 골짜기 넘어 지니고 다니셨고 이 피리로 영원히 새로운 노래를 부르십니다. 당신 손길의 끝없는 토닥거림에 내 가냘픈 가슴은 한없는 즐거움에 젖고 형언할 수 없는 소리를 발합니다./당신의 무궁한 선물은 이처럼 작은 내 손으로만 옵니다. 세월은 흐르고 당신은 여전히 채우시고 그러나 여전히 채울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¹⁹⁾ 당신은 그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순간마다 해마다, 날마다 밤마다,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술한 노래를 마음의 술한 느낌에 따라 불러 왔지만 그 모든 가락이 언제나 부르짖었던 것은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햇빛 맑은 사원의 향긋한 날엔 숲속 오솔길로 그

리스어로 <나비>라는 뜻인데, 이 말은 <영혼>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하기가 영혼의 불멸성을 설명하는 데 나비만큼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나비는 꾸물꾸물 배로 기어 다니는 생활을 마친 뒤 자기가 누워있던 묘지(번데기)에서 나와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날아 나와 날빛 속을 너울너울 춤추거나 더 없이 향기롭고 감미로운 봄날의 정취를 마시고 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쉬케는 곧 인간의 영혼이어서, 괴로움과 불행을 통하여 정화된 뒤에야 이같이 참으로 순수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17) B. 몬딘, 허재운 옮김, 《인간: 철학적 인간학 입문》(서울: 서광사, 1996), 66쪽.

18) 로마의 키케로는 랠리기를 “삼가 경의를 표한다”는 뜻을 가진 relegere의 명사형으로도 보았다.

19) 타고르, 김병익 옮김, 《기탄잘리》(서울: 민음사, 2001), 2쪽: 기탄잘리 <1>.

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칠월 밤의 비 오는 어둠 속엔 천둥
치는 구름 마차를 타고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슬픔에
잇따른 슬픔 속에 내 가슴을 밟는 것은 그의 발자국, 내 기쁨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발이 밟는 황금의 촉감입니다.²⁰⁾

《참고문헌》

- 교육법전편찬회, 《교육법전》, 서울: 교학사, 2005.
- 김정신, 〈영성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5(1), 2002, 53-78쪽.
- 김철주·고병철,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종교교육론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17, 2003, 107-132쪽.
- 닐 포스트먼, 차동춘 옮김, 《교육의 종말》, 서울: 문예출판사, 1999.
- 데이비드 호킨스, 문진희 옮김, 《나의 눈》, 서울: 한문화, 2001.
- 도정일 외 10인, 《사유의 공간》,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 라벨, L., 최창성·이상호 옮김, 《영원한 현존》, 서울: 서광사, 2000.
- 류기중, 《기독교와 동양사상》, 서울: 황소와 소나무, 2003.
- 마이클 피터슨 외 3인, 하종호 옮김, 《종교의 철학적 의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 몬던, B., 허재윤 옮김, 《인간: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울: 서광사, 1996.
- 박범석,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박범석, 〈교육적 인식으로서의 종교적 직관〉, 《종교교육학연구》, 17, 2003, 161-175쪽.
- 벨테, B., 오창선 옮김, 《유한과 무한의 겨울터》, 서울: 카톨릭대학교출판부, 1996.
- 블레이크, W., 김종철 옮김, 《천국과 지옥의 결혼》, 서울: 민음사, 1991.
- 쇠렌 키에르케고르, 임규정 옮김, 《불안의 개념》, 서울: 한길사, 1999.
- 아리스토텔레스, 유원기 역주, 《영혼에 대하여》, 서울: 궁리, 2001.
- 엘리아데, M., 이은봉 옮김, 《성(聖)과 속(俗)》, 서울: 한길사, 2005.
- 오강남, 《예수는 없다》, 서울: 현암사, 2001.
- 오영환, 《화이트헤드와 인간의 시간경험》, 서울: 통나무, 1999.
- 요셉 드 프리스, 신창석 옮김, 《스콜라 철학의 기본개념》, 왜관: 분도출판사, 2000.
- 윌리엄 페이든, 이민용 옮김, 《성스러움의 해석》, 서울: 청년사, 2005.
- 이윤기 편역, 《그리스 로마 신화》, 서울: 창해, 2001.
- 정인석,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서울: 대왕사, 2003.
- 정화열, 이동수 외 3인 옮김,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서울: 아카넷, 2005.

20) 위의 책, 40쪽: 기탄잘리 <45>.

- 제럴드 L. 싯처, 윤종석 옮김, 《하나님의 뜻》,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1.
- 최용호, 《텍스트 의미론 강의》, 고양: 인간사랑, 2004.
- 최정만, 《비교종교학》, 서울: 이레서원, 2005.
- 칼릴 지브란, 박철홍 옮김, 《예언자》, 서울: 김영사, 2004.
- 켄 월버, 김철수 옮김, 《무경계》, 서울: 무우수, 2005.
- 크리스토퍼 브룩, 이한우 옮김, 《수도원의 탄생》, 서울: 청년사, 2005.
- 타고르, 김병익 옮김, 《기탄잘리》, 서울: 민음사, 2001.
- 토마스 아퀴나스, 김진·정달용 옮김, 《존재자의 본질에 대하여》, 서울: 서광사, 1995.
- 폴 리콥르, 양명수 옮김, 《해석의 갈등》, 서울: 아카넷, 2001.
- 한나 아렌트, 홍원표 옮김, 《정신의 삶 I: 사유》, 서울: 푸른숲, 2004.
- 한스 페터 뒤르 워 4인, 《신, 인간 그리고 과학》, 서울: 시유시, 2000.
- 한스 페터 험펠, 이기상·추기연 옮김, 《하이데거와 禪》, 서울: 민음사, 1995.
- 함석헌 주석, 《바가바드 기타》, 서울: 한길사, 1997.
- O'Sullivan, Edmund, *Transformative Learning: Educational Vision for the 21st Century*, London: Zed Books, 1999.
- Ornstein, Allan C., and Levine, Daniel U., *Foundations of Edu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2005.
- Ryan, Kevin, and Cooper, James M., *Those Who Can, Teach*,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2004.
- Smith, Richard, and Wexler, Philip(edi.), *After Postmodernism: Education, Politics and Identity*, London: The Falmer Press, 1995.
- The Holy Bible*, Toronto: International Bible Society, 1984.
- The Science of Meditation, *Time*, August 4, 2003, pp. 46-54.
- Wright, Andrew, *Religion, Education, and Post-modernity*, London: RoutledgeFalmer, 2004.

원고접수: 2005년 11월 2일 1차심사: 12월 5일 게재승인일: 12월 16일

연구자 소개: 서명석

① 전공: 교육철학 / 소속: 제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동양교육담론의 탈-근대적 해석

③ 주요논저: 《산과법 대 선문답: 교육적 대화의 일치와 불일치》, 《공부의 알맹이와 껍데기 - 그것의 왜곡과 굴절을 바라보기》, 《인격과 성학의 신-성리학적 이해》

④ E-mail: fieldpath@empal.com

A Critical Deconstruction on Modern Education by Religion and Religious Education

Seo, Myoung-Seok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We shall not cease from exploration
And the end of all our exploring
Will be to arrive where we started
And know the place for the first time
(T.S. Eliot, *Four Quartets*)

Human beings is Homo religiosus. As we know, God is undefinable. Although it is unknowable, it is not concrete but real. In this respect, we have rather to appreciate those religious world.

But education is, we would discuss, relied on modern message. In this paradigm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in founded on the discourse of modernity and its self-understandings have forged by that discourse's basic and implicit assumption. The very rationale of the educational process and the role of education is ratio-motivated, ratio-directing, and ratio-managing by rational subject. Undoubtedly, then, there are problems confronting those that is deeply embedded notions of foundations, disciplines and scientificity.

Openness to the possibility of human beings on ultimate truth is a necessary component of religion. This is spirituality of spiritus or Ruach. Religion attempts institutionalize spirituality and in many instances this is done for the perpetuation of the sacred topos rather than profane topos. Because human beings live between sacred and profane interchangeably. This dynamic openness is evident in the diverse expressions of the human spirit seen in many religions of the world. It is also manifest in the various expressions of spirituality outside modern ratio. An education concerned with questions of religious truth must accept the fact that religion is a

fundamental reality per se. Such receptivity of religion is grounded in the post-modern desire. Our's cherished fore-structures of understanding in modern ratio is challenged by religio as a means of guiding the pilgrimage towards an 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the ultimate order-of-things. The impact of post-modernity on the legacy of modernity has much to teach us now. Specially we can note the danger of a narrowly conceived modern education's theory and practice. Our exploration of the interface between religion and education has produced a high viewpoint of education. The open ultimate order-of-things has much to teach the religiosus: "relegere ergo sum."

Key words: modern, modern education, ratio, religion, religious education